

중앙종친회 제33차 정기총회

대중회와 양자간 통합기로 결의하고
남중공단소 이설 문제로 물의



▲ 중앙종친회의 정기총회가 열리고 있다.



▲ 권정달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권이혁 명예회장이 치사를 하고 있다.



▲ 권오홍 감사가 감사보고를 하고 있다.

5월 6일 수요일 11시 30분에 안동권씨중앙종친회의 제33차 정기총회가 서울 종로구 신문로 소재 한글회관 지하 2층 강당에서 열렸다. 각지역 종친회 별로 대의원 자격을 가진 초청자등 80여명이 모였고 권경석 권경皙 사무장의 진행으로 개회예례를 마치고 중앙종친회 발전에 기여한 이들에게 주는 공로패가 증정되었다. 권영상 권寧祥 감사, 권규화 권圭華 부회장, 권길상 권吉相 부산종친회장, 권호준 권鎬俊 대전 참의공중중이사장, 권영평 권寧平

전주종친회장, 권학주 권學周 원주종친회장, 권순식 권純植 대구종친회 부회장, 권춘희 권春喜 부산부녀회 명예회장이 각기 이 패를 받았다. 내빈이 소개되고 권정달 권正達 중앙종친회장이 개회인사말을 하였다. 권정달 회장은 저간의 종사에 대한 개괄 설명을 겸하여 '지난 연말에 불미스러운 일로 문중에 충격과 염려를 끼쳐 송구하며 많은 족친유지께서 탄원서에 모금까지 하여 도와주신 데 감사한다. 문중에 할일이 산적해 있는데 활동이 원활치 못했다. 행주산성의 충장공 대첩제 행사와 석주 권필 선생 시비 제막식에 참석하였고, 청도의 남중공 봉암재사가 노후하여 작년 추향에 권길상 부산종친회장이 다리를 다치는 일까지 있었지만 금년 봄의 능동과 봉암 양소 춘향을 무사히 치렀다. 4월 26일 강릉에서 전국청장년체인이 성대히 거행되었다. 강릉종친회와 청년회의 노고를 치하드린다. 금년의 가장 큰일은 남중공 단소를 이설하는 일이다. 일단 일을하기로 결정하자 상상 이상으로 이단 준비를 열심히들 추진하고 있다. 금년 추향에는 청도의 남중공 단소를 안동으로 옮겨 시조 태사공의 향사와 같은 날에 제사를 올릴 계획을 하고 있다. 경제사정이 어려운 때에 남중공의 단소 이전을 위한 모금을 하게 되어 죄송하나 이것이 우리가 해야할 과제로 생각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요지를 말하였다.

권이혁 권益赫 명예회장이 치사致辭를 하였다. 권이혁 명예회장은 학계에 있는 몸으로 중중보다는 미국의 명문 하버드대에 관한 일화를 들어 이야기를 하겠다고면서 '처음에 목사양성을 위한 9인의 학생으로 시작한 뉴칼리지가 백년 만에

세계 제일의 대학이 되었다. 이렇게 하버드를 세계 제일로 만든 사람이 떠나가면서 남긴 말이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었다. 우리 안동권씨 문중에도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 많다. 이러한 안동권씨 문중에 태어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자'는 요지의 덕담을 하였다.

다음에 권해옥 권海玉 고문이 축사를 하였다. 권해옥 고문은 축사중에 스스로 '변명 아닌 변명'을 하겠다는 신상발언성 해명을 하였는데 여기에서 본지와 본지 편집인의 실명 등이 부적절히 거론되었다. 거론내용중에 본사가 어렵다고 하여 모인에게 금일봉을 전했다고 한 것은 몇해 전 본사를 법인화하고자 주식을 공모할 당시 이에 청약했던 일을 잘못 지칭함이 아닌가 의심되었고, 부산종친회 모씨의 말을 빌어 본지 편집인이 '중앙종친회를 고발하고, 사사건건 시비에 휘말리는 사람에 분파적 요소 운운한 것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공식석상에서 언급함으로써 특정인의 명예가 배려되고

있지 않는 사례로 보였다.

권경석 사무장이 유인물로 작성된 경과보고와 결산보고를 하였다. 2008년 4월 1일부터 2009년 3월 31일까지의 수지총괄은 일반회계가 수입 2억4천1백10여만원에 지출 2억3천7백여만 원, 차기이월 4백10여만 원이고, 특별회계가 1억4천496만여 원에 지출 1억3천여만 원, 차기이월 1천479만여 원이었다. 결산회계는 원안대로 승인통과되었다.

감사보고에서 회계 감사 내용은 이상이나 지적이 없이 승인되었으나 경과보고 내용에 대해 권오홍 권五興 감사가 한 항목을 지적하여 인정불가의 뜻을 밝혔다. 경과보고의 제5항은 제목이 '남중공 단소 이단추진위원회 구성'으로서 '2009. 3. 12. 대중회는 남중공 단소 이단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고문에 권이혁 권益赫, 권문수 권文洙, 권오희 권五熙, 권태일 권泰日, 권정달 권正達 회장을, 추진위원장에 권영한 권永漢, 부위원장에 중앙종친회 부회장 20명, 대중회 부회장, 15파종회장으로, 위원은 중무위원 70명, 지역종친회장 15명, 지파종회장 10명으로 하여 2009년 추향전까지 안동 시조묘소 아래로 이단기로 의결하였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하여 권오홍 감사는 이는 인정할 수 없는 일이며 전종원의 총의를 물어 가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다음 2009년도 예산안이 심의되었다. 2009년도 예산의 일반회계는 수입이 8천7백11만여 원, 지출이 동액이고 특별회계는 수입이 1억2천329만여 원, 지출이 동액인데 무수정 통과되었다.

능동장학회 장학사업이 보고되었다. 능동장학회는 2008년도 결산이 기본재산 5억2백만 원에 수입이 4천2백67만여 원, 지출이 2천9백77만여 원에 차기이월이 1천2백89만여 원이고, 장학금 지급은 대학생 B학점 이상자에게 1학기 9명, 2학기 10명을 선정하여 총2천2백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의안 처리를 마치고 기타토의사항의 순서에서 권정달 회장은 중앙종친회와 대중회의 통합안을 의제로 내놓았다. 권정달 회장은 자신이 현임하고 있는 중앙종친회장직이 내년 4월로 임기만료가 된다는 점을 밝히고 그 안에 중앙종친회와 대중회가 통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을 피력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권오선 권五宣 부회장이 이 문제는 안동의 대중회와 협의를 하여 추진할 일이므로 중앙종친회 총회에서 통합 결의를 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이에 대해 권정달 회장이, 이것은 통합을 원칙적으로 합의하는 결의를 하자는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안동의 권오수씨는 통합사무소를 안동에 두는 문제를 결정할 것을 주장하고, 이에 대해서도 권정달 회장은, 여기서는 원칙만 결정하고 세부적인 사안은 다음에 논의하는 것으로 하자 하였다. 이같은 원칙적 합의에 대한 찬반 의사를 거수로 표시해 줄 것을 의장이 요구했고 이에 전원이 찬성 거수를 하여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

끝으로 권영한 남중공단소이단추진위원장이 나와 헌성금의 모금 현황을 말하고 헌성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면서 부산지역에서 모금이 상당히 이뤄지고 있는데 서울에서 많이 걷히지 않는다 하였다. 이때 권오홍 감사가 그 이단설 자체의 불가함을 역설하고 나섰다. 권오홍 감사는 이 문제는 안동권씨후손 전종원의 총의를 묻고 동의를 구해 결정할 문제임을 거듭 역설하고 기왕에 모금이 이뤄진 재정은 남중공 단소와 유적의 보수 유지와 활성화에 쓰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권정달 회장은 그러면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서 다시 표결할 것인지를 물었으나 권오홍 감사는, 지금 여기에 모인 정도의 종원인원을 가지고 표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닐만큼 중대한 문제라는 주장으로 이를 강력히 거부하였다.

<사진·글 권允奇>

근기요산회 6월 산행안내

안동권씨근기요산회近畿樂山會의 6월 정기산행을 아래와 같이 행하오니 많은 회원의 참여 바랍니다. 항상 가족동반을 환영합니다.

일 시 : 2009년 6월 20일(셋째주 토요일) 오전 10시
집결장소 : 지하철 5호선 서울 광진구 아차산역 2번 출구
산 행 지 : 아차산 및 용마산
준 비 물 : 등산복, 등산화 착용 및 선택적 이동식
연 락 처 : 총무 권병일 011-289-1747 권기운 010-7282-3608

안동권씨근기요산회장 권寧翼